

예비초등교사의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및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

문소현¹, 조헌하^{2*}

¹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²고신대학교 간호대학

Association of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to Attitudes about Child with Asthma i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So-Hyun Moon¹, Hun Ha Cho^{2*}

¹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일부 지역 교육대학생의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만성질환인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생 3, 4학년 329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대학생의 건강지각점수는 4점 만점에 2.85점, 건강증진행위는 4점 만점에 2.49점,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67점이었으며,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와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건강지각, 학년이 확인되었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를 12.2%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에게 있어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 실천이 만성질환아동인 천식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천식 및 만성질환 아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eservice teacher's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s children with asthma, as well 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e participants were 329 third and fourth grade students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The score for the participants' health perception was 2.85 out of a possible 4, health promoting behavior about 2.49 out of a possible 4, and their score for attitude towards asthma was 3.67 points of a possible 5. The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ttitudes about child with asthma. Interpersonal relations and health perception and grad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ttitudes about child with asthma.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12.2% of the attitudes about child with asthma.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intervention strategies to enhance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health perception.

Keywords : Asthma, Attitude, Health Percep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un Ha Cho(Kosin Univ.)

Tel: +82-51-990-3959 email: hhuna@kosin.ac.kr

Received November 11, 2016

Revised January 6, 2017

Accepted March 10, 2017

Published March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천식은 적절한 예방 및 관리가 미흡하여 잦은 증상악화와 재발로 특히 소아들에게 예상치 않은 입원과 응급실 방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1].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천식 관련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중 대비 12세 이하가 3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12세 이하에서 가장 진료를 많이 받아 아동기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만성질환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 만성질환아동의 사회적 지지 환경인 교사의 인식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3], 교사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지식과 자신의 건강행위 정도를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지도에 전문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 건강교육에서 역할모델로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4-5]. 교육자로서 그리고 역할모델로서 교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정 가능한 결정요인인 건강행위를 지도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다. 사회생태학적모델[6]과 사회인지이론[7] 같은 건강행위 이론에 따르면 교사와 같은 중요한 성인이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아동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건강행위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인 심리, 정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보다 교사들의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건강교육 전략을 수립할 때 그리고 건강행위 성향의 지표로서 교사들의 건강지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8]. 건강지각이란 인간이 안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9],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부여 요인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고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10].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11]의 연구에서 교사가 보건교육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므로 보육교사의 건강의식이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강에 대한 인식에 따라 건강지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건강행위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12]를 고려할 때 교사가 건강지각정도가 높고 유익한 건강행위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아동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천식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천식 지식을 조사한 것[13]과 학교에서의 소아 아토피, 천식질환 예방전략 개발 중 천식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를 평가한 것[14], 천식에 대한 지식, 공감 및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15] 등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만성질환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지지인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건강인식 및 건강행위가 만성질환아동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건강지각과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도는 건강에 관한 생활습관들이 생활양식으로 고정화되면 변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12] 교사가 된 후 수정하기 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중인 예비교사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전인 교육대학교 학생의 건강지각과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적인 만성 질환 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교육학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천식 아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건강지각 및 건강증진행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예비교사의 건강지각 및 건강증진행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한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 및 건강증진행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예비교사의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대학교 중 임의로 선정된 1개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355명이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자 26부를 제외한 총 3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G광역시 소재한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과장과 전공과목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2.3 연구 도구

2.3.1 건강지각

Ware[9]가 개발하고 Lee[16]가 일반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건강지각 측정도구(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건강지각 내용은 현재의 건강(7문항), 과거의 건강(2문항), 미래의 건강(2문항), 건강관심(4문항), 저항성과 민감성(2문항), 환자역할거부(3문항)를 포함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건강지각 항목 중 부정적인 항목은 점수를 역산 처리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지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Ware가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2였고, Lee의 연구에서도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다.

2.3.2 건강증진행위

Walker[17]가 개발한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II)를 Yun과 Kim[18]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52개 문항으로 6개 하위영역인 건강책임, 신체적 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안한다(1점)’에서 ‘항상 한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un과 Kim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건강책임 .86, 신체활동 .91, 영양 .74, 영적성장 .82, 대인관계 .81, 스트레스 관리 .70이었다.

2.3.3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Brook과 Galili[19]를 Moon과 Cho[15]가 천식아동의 교사에 대한 태도 질문지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천식아동의 학업성취, 결석, 삶의 질, 자아상, 학급 참여 등에 대한 교사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3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증하였다.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대상자의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45세였고, 남학생이 98명(29.8%), 여학생 231명(70.2%)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159명(48.3%), 4학년이 170명(51.7%)이었다. 학업성적은 평점 3.0~3.9점대가 284명(86.3%)이었다. 만성질환 아동 건강관리 수감경험은 없음이 325명(98.8%), 천식 아동 건강관리 수감 경험은 없음이 327명(99.4%)으로 높았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천식에 대한 태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년에 따라 건강증진행위

Table 1. Health percep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9)

variables	category	n(%)	range	Health percep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M (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rs)		21.45(1.55)	19~29						
gender	male	98(29.8)		56.56 (5.59)	-.71 (.477)	131.16 (19.01)	.871 (.384)	36.61 (4.64)	-.209 (.834)
	female	231(70.2)		57.01 (5.18)		129.11 (19.66)		36.71 (3.99)	
Grade	3	159(48.3%)		56.75 (5.13)	-.610 (.542)	132.10 (17.98)	2.198 (.029)	36.069 (4.069)	-2.518 (.012)
	4	170(51.7%)		57.11 (5.64)		127.41 (20.52)		37.223 (4.24)	
Grade point average score	2.0~2.9	31(9.4%)		55.097 (4.268)	2.218 (.121)	127.55 (17.91)	.641 (.527)	36.00 (3.61)	.477 (.621)
	3.0~3.9	284(86.3%)		57.155 (5.46)		129.86 (19.55)		36.76 (4.22)	
	≥4.0	14(4.3%)		57.428 (4.941)		134.57 (15.92)		36.43 (4.91)	
Education in health care management for child with chronic disease	No	325(98.8%)		56.97 (5.40)	.909 (.364)	129.85 (19.50)	1.42 (.157)	36.630 (4.188)	-1.363 (.174)
	Yes	4(1.2%)		54.50 (4.65)		116.00 (6.78)		39.500 (3.696)	
Education in Health care management for child with asthma	No	327(99.4%)		56.95 (5.398)	.772 (.441)	129.792 (19.428)	1.364 (.173)	36.66 (4.20)	-.282 (.778)
	Yes	2(0.6%)		54.000 (4.24)		111.00 (16.970)		37.50 (.707)	

($t=2.198, p=.029$)와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t=-2.518,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점수는 낮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점수는 높았다.

3.3 대상자의 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정도

대상자의 건강지각 정도는 평점평균 2.85점(4점 만점)이었고,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평점평균 2.49점(4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별 평점평균 점수는 대인관계 2.94점, 영양 2.37점, 건강책임 2.02점, 신체활동 2.35점, 스트레스 관리 2.44점, 영적 성장 2.82점이었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 정도는 평점평균 3.67점(5점 만점)이었다.

Table 2. Health percep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N=329)

	M(SD)	Range
Health perception	2.85(0.27)	42-76
Health promoting behavior	2.49(0.37)	76-183
Interpersonal relations	2.94(0.44)	17-37
Nutrition	2.37(0.49)	10-36
Health responsibility	2.02(0.56)	9-34
Physical activity	2.35(0.68)	8-32
Stress management	2.44(0.45)	9-31
Spiritual growth	2.82(0.50)	12-36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3.67(0.42)	26-48

3.4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는 건강지각($r=.276, p<.001$), 건강증진행위($r=.121, p=.028$)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에서는 대인

관계($r=.285, p<.001$), 영적 성장($r=.218,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health percep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N=329)

	Health perception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Health perception	1	.276 (<.001)
Total	.407 (<.001)	.121 (.028)
Interpersonal relations	.453 (<.001)	.285 (<.001)
Nutrition	.276 (<.001)	.083 (.135)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responsibility	.090 (.104)	-.043 (.434)
Physical activity	.264 (<.001)	-.004 (.943)
Stress management	.281 (<.001)	.038 (.494)
Spiritual growth	.452 (<.001)	.218 (<.001)

3.5 대상자의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와 상관성을 보인 건강지각과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영적성장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을 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계수가 0.80 미만이었고 독립변인간의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481-.995로 0.3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0-1.263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2.00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건강지각, 학년이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5.09, p<.001$) 이 3가지 변수들이 천식에 대한 태도를 1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beta=.193$), 건강지각

($\beta=.185$), 학년($\beta=.117$)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attitude about child with asthma

variables	B	SE	β	t(p)	Adj R ²	F(p)
Constant	19.599	2.755		7.115 (<.001)		15.090 (<.001)
interpersonal relations	.205	.062	.193	3.304 (.001)	.081	
Health perception	.144	.045	.185	3.171 (.002)	.109	
grade	.983	.436	.117	2.254 (.025)	.122	

4. 논의

본 연구는 예비교사인 교육대학교 학생의 건강지각과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적인 만성 아동 질환에 대한 태도에 영향하는지 확인함으로 교육학 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천식 아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지각은 4점 만점에 2.85점으로 중간이상의 건강상태를 보였고, 동일한 도구로 일반 대학생を対象으로 한 Kim 과 Jung[20]의 연구 3.29점보다 다소 낮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Kim, Park[21]의 연구에서도 3.22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간 이상으로 건강을 지각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증진행위는 4점 만점에 2.49점으로 평균이상이었고,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과 Moon[22]의 연구에서 2.3점과 유사하게 보통 이상이거나 Kim 과 Jung[20]의 연구에서 2.88점보다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대학생보다 예비교사가 될 교육대학교 학생의 건강지각정도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학령기 아동의 일차적인 건강관리의 주요 책임자가 될 교육대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행위에 대한 지각을 높이고 건강증진 실천의지를 갖고 올바르게 건강한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익힐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강증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평점평균 2.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적 성장 2.82점, 스트레스관리 2.44점, 영양 2.37점, 신체활동 2.35점이었고 건강책임 2.02점으

로 가장 낮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3]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대인관계 영역 점수가 2.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 영역이 2.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대학생이 건강증진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 조화로운 관계유지의 타인과의 관계는 잘 형성하고 있으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돌보거나 필요시 건강교육을 받는 건강책임 영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모델이 되며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자원이 될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대학 교육과정 중에 건강관련 과목의 개설과 충분한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교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하위영역중 영적 성장이 3.0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통합된 유기체적인 학생들을 돌보게 될 예비교사의 자질과 태도가 더욱 영적인 면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24]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영적성장을 높일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는 평균평점 3.67(5점 만점)점으로 평균이상이었으며 예비교사 대상으로 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Brook과 Galili[19]의 연구에서 만성질환 및 만성질환 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따라 급우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태도가 좌우되며, 교사의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능력, 또래관계, 자존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25] 교사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im과 Hwang[26]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인 천식을 포함한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교육적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건강장애 학생 및 가족과 주위의 관련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개별화된 교육과정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기 건강습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이자 건강에 관한 생활습관들이 생활양식으로 고정화되기 전인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중인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며,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질병에 대한 지식 및 관리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나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63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천식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재하여 만성질환아동의 교사에 대한 태도 설문지를 천식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광범위한 만성질환이 아닌 천식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이 3학년보다 건강증진행위는 낮고,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ong[27]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어 반복 연구가 필요하나, 교육대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임용고시 준비 관련 스트레스가 많아 건강증진행위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건강증진행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중 대인관계, 건강지각, 학년이 확인되었다. 즉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 친밀감 및 친교와 관련된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와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특히 예비교사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 생활양식이 만성질환아동인 천식 아동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증진생활양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보육교사의 건강이 영유아들을 위한 질적인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는[2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교사가 만성질환 아동인 천식 아동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있는 교사가 천식아동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지각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건강지각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안녕감과 개인적 만족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의 건강지각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만성질환 아동의 교육의 질적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령기 아동을 담당해야 하고 바랍직한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기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에게 있어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 건강증진을 위

한 행위 실천이 만성질환아동인 천식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천식 및 만성질환 아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건강증진행위 하위영역중 대인관계와 건강지각, 학년이 천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인관계 생활양식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규명되었다. 교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지각이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학급의 다른 아동들의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행위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더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예비교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건강지각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천식아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하는 관련 변수의 수가 적고 설명력은 12.2%에 불과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천식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반복연구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J. Seo, W. Y. Lee, "Pilot and Feasibility Study of a Manag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Asthm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22, no. 1, pp. 1~16, 2009.
- [2]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hild and Adolescent with Allergy [internet], 2016 [cited 2016 June 7]. Available From: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19459> (accessed Oct., 10, 2016)
- [3] H. H. Cho,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Soci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 for the Children with Cancer",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orea University, 2006.
- [4] B. R. Bewley, M. R. Johnson, M. H. Banks, "Teachers' Smoking",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33, no. 3, pp. 219-222, 1979. DOI: <https://doi.org/10.1136/jech.33.3.219>
- [5] M. Barrueco, M. A. Hernandez-Mezquita, C. Jimenez-Ruiz, M. Torrecilla, M. T. Vega, E. Garrido, "Attitudes of Teachers about Tobacco Prevention at School", *Allergologia et Immunopathologia*, vol. 28, no. 4, pp. 219-24, 2000.
- [6] D. Stokols, "Translating Social Ecological Theory into Guidelines for Community Health Promo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 10, no. 4, pp. 282-98, 1996. DOI: <https://doi.org/10.4278/0890-1171-10.4.282>
- [7] A. Bandura, "Health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Theory", *Psychology & Health*, vol. 13, no. 4, pp. 623-649, 1996. DOI: <https://doi.org/10.1080/08870449808407422>
- [8] F. Gilbert, J. B. Richard, P. Lapie-Legouis, "Health Behaviors: Is There any Distinction for Teachers? a Cross-sectional Nationwide Study", *Plos One*, vol. 10, no. 3, pp. 1-13, 2015.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20040>
- [9] J. E. Ware. *Health Perception Questionnaire, Instruments for Measuring Nursing Practice and other Care Variable*. DHEW Publication, Marryland, 1979.
- [10] K. R. Shin, J. S. Kim, "A study on Health Concern, Self rated Health,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lderly Women in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4, no. 5, pp. 869-880, 2004.
- [11] H. Y. Kim, "Case Study of Pre-daycare Teachers' Knowledge on Health and its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3.
- [12] J. H. Roh, J. H. Lee, "A Stud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acti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2, no. 1, pp. 29-48, 2008.
- [13] W. K. Kim, H. R. Lee, S. Y. Yoon, "An Assessment of Asthmatic Knowledge of School Teachers",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vol. 8, no. 2, pp. 179-189, 1998.
- [14] W. Y. Lee, S. H. Cho, S. J. Hong, J. H. Yu, Y. S. Chang,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Strateg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Asthma and Atopic Eczema, Health Promotion Fund Research Report.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of College of Medicine, 2008. Report No: 07-36.
- [15] S. H. Moon, H. H. Cho, "Knowledge about Asthma, Empathy, and Attitudes to Child with Asthma for Students in a University of Educa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2, no. 1, pp 11-20, 2016. DOI: <https://doi.org/10.4094/chnr.2016.22.1.11>
- [16] T. H. Lee, "Analysis of Impact Variable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89.
- [17]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Health-promoting lifestyle profile II. The [Internet]. [cited 2012 March 9]. Available From: [http://app1.unmc.edu/nursing/conweb/view_profile.cfm?lev1=facstf&lev3=facswalker&Pubstat=\(none\)](http://app1.unmc.edu/nursing/conweb/view_profile.cfm?lev1=facstf&lev3=facswalker&Pubstat=(none)) (accessed Oct., 10, 2014)
- [18] S. N. Yun, J. H. Kim, "Health-promoting Behaviors of the Women Workers at the Manufacturing Industry based on the Pender's Health Promotion Model",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8, no. 2,

pp. 130-140, 1999.

- [19] U. Brook, A. Galili,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gh School Teachers towards Pupils Suffering from Chronic Disease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43, no. 1, pp 37-42, 2001.
DOI: [https://doi.org/10.1016/S0738-3991\(00\)00148-8](https://doi.org/10.1016/S0738-3991(00)00148-8)
- [20] S. J. Kim, E. Y. Jung, "A Relevance on Health Perception,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8 pp. 5394-540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8.5394>
- [21] I. S. Park, R. Kim, M. H. Park,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203-211, 2007.
- [22] N. H. Yang, S. Y. Moon,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33-42,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33>
- [23] H. K. Kim,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Pender's Mode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2, no. 2, pp. 132-141, 2006.
- [24] C. N. Kim, Y. S. Park,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Teach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8, no. 1, pp. 92-102, 1999.
- [25] L. P. Hsieh, H. H. Chiou, "Comparison of Epilepsy and Asthma Perception among Preschool Teachers in Taiwan", Epilepsia, vol. 42, no. 5, pp. 647-650, 2001.
DOI: <http://doi.org/10.1016/J.1528-1157.2001.39200.X>
- [26] J. Y. Kim, J. Y. Hwang, "Preservice Secondary Teacher's Perceptions of the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s and their Education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0, no. 1, pp. 121-140, 2015.
- [27] S. H.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78-86,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78>
- [28] C. H. Lee, T. S. Kho, "Childcare Teacher's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8, no. 1, pp. 41-51, 2008.

문 소 현(So-Hyun Moon)

[정회원]



- 2003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 청소년기 여성 정신건강, 월경전후기 증상

조 헌 하(Hun Ha Cho)

[정회원]



- 2000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호스피스 완화 간호